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4월 1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아버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예외병대

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예외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

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평양시민들과 함께 태양절경축 은하수음악회를 관람하시고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를 보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명절을 맞으며 15일 평양의 인민극장에서 태양절경축 은하수음악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장내는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령도실력, 고매한 인덕을 지니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흥성6중창 《태양절을 노래 하세》, 남성독창과 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여성독창과 여성방창 《충성의 노래》, 여성3중창 《수령님의 조국》, 여성4중창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 하세》, 남성독창과 남성방창 《오늘의 창성》, 흥성2중창과 남성방창 《화

금산타령》, 흥성6중창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등의 종목들이 울랐다. 민족악2중주 《비날론 삼천리》, 흥성중창 《돌과하라 최침단을》 등의 종목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가 있어 태양절의 존엄과 기상이 만방에 펼쳐지고 주체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쁨이 마련되었음을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생하시며 태양의 령사는 길이 빛날것이라는 신념이 차넘치는 무대에 여성독창과 남성방창 《인생의 영광》, 여성독창과 방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앞으로》의 종목들이 오르며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체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묻혀 반미 전면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천만군민의 의지를 풍만한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준 음악회는 흥성대중창 《운명도 미래도 맡길분》으로 끝났다. 장내에는 또다시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끝없는 감격과 환

희가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적을 축하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5일 군사학교 교직원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체육경기를 보시였다. 환호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로 수령영생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키시어 태양의 령사가 끝없이 흐르도록 해주시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고계시는 백두산대국의 힘이고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전투력강화와 부강조국건설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뜻깊은 태양절을 자랑찬 위훈속에 맞이한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오금철 육군상장이 경기를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드리였다. 먼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간의 배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는 백두산혁명군인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필승의 신념을 힘있게 과시하며 전투적으로 박력있게 진행되였다. 열광적인 응원으로 하여 장내는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배구경기에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팀이 이겼다. 이어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간의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랑림 선수들은 속공에 의한 결함진술을 위주로 하여 전격전을 벌리면서 룬밀넣기와 중장거리던져넣기로 보기 좋은 득점을 성공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수들이 재

있는 동작들로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보여 줄 때마다 박수를 보내시며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격렬하게 진행된 축구경기에서도 김일성군사종합대학팀이 이겼다. 이날 관람자들의 호기심과 솜주치는 격정을 한껏 분출시키며 장기경기와 바출당기경기기도 진행되였다. 장기경기에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바출당기경기에서는 김일성정치대학이 승리하였다. 응원을 비롯한 경기종목들에 대한 평가와 시상이 있었다. 체육경기가 끝나자 장내에는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소리가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며 경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가 훌륭히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집단주의정신과 높은 경기도덕품성을 발휘한 선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1돐을 맞으며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1억 9830만부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 까지 도합 159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7억 235만 390부에 달한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건제품생산을 늘리고있다. -대동강건제품공장에서-

지난 18일 남조선의 통일부당국자는 저들의 그 무슨 《대화》라 명에 대한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에 대해 《유감》이니 뭐니 하는 일토당도않은 말을 늘어놓았다. 지어 외교부 대변인이라는자는 《북의 주장은 참으로 리해하기 어렵다.》느니, 《적분화장》, 《어불성설》이라는 발언까지 하였다. 첩문피하다는 말은 이런것을 두고 하는 소리이다. 외세와 결탁하여 공화국에 대한 《제재》소동과 북침전쟁책동에 것처럼 미쳐달뛰면서 사죄한마디없이 빈껍데기에 불과한 《대화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앙탈질을 부리는것이야말로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의지를 가지고있었다면 먼저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북침전쟁연습과 반공화국 《제재》소동을 걷어치우며 앞으로도 그러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것을은 민족앞에 확약하는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사태는 그와는 정반대로 흐르고있다. 며칠전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한 망동들이 당국의 비호밑에 공공연히 감행되

었다. 또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소동도 절정에 달하고있다. 지난 5일부터 포함일대에서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3사단 등 3000여명이 참가한 연합상륙훈련이 벌어지고있다. 상륙작전이 명백한 공격작전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러나 내외호전광들은 이 훈련에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외피를 씌우고 침략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여기에서 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호전광들은 물론 청와대안방주인까지 직접 나서서 《북이 위협하고 도발하면 또다시 협상하고 지원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느니, 《북의 고립》이니 뭐니 하고 공화국의 존엄을 심히 훼손하는 망발을 하였다. 나라란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의 《대화제의》라는것이 처음부터 전혀 마음에 없는것이였으며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들고나온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정세를 전시상황에 몰아넣은 저들의 죄행을 피로자르기하고 위

를 모면하며 여론을 오도하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남조선당국이 개성공업지구문제만을 대화의 의제로 삼으려고 하지만 이번 공업지구사태로 말하면 현 북남관계체제의 집중적반영이다.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장으로, 전쟁발원지로 만들려 하면서 《운영정화화》를 위한 대화》요 뭐요 하는것은 한갓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매달리

행사하기 위한 범법들을 채택하였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틀어쥐었다. 핵보유와 위성발사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공화국의 정정당한 자주권권리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론하는 대화는 영원히 없을것이다. 이번 조미전면대결전의 시발점은 공화국의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문제시한데 있다. 《제재》소동을 벌리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호를 위한 정정당한 자위적대응조치에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군사적압박을 가하는 악순환속에서 대화는 열릴수 없고 설사 열더라도 지속될수도 없고 해결될것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한쪽이 되어 공화국의 우주개발과 핵무력강화를 합부로 걸고들면서 반공화국 《제재》, 압살책동에 가담하고 조선반도에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책동을 계속 벌리는 한 북남대화나 북남관계개선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대결과 대화, 《제재》와 대화는 결코 량립될수 없다. 김철민

## 대결과 대화는 량립될수 없다





# 병진로선은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

## 최후 승리의 지름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제시된것과 관련하여 본사기자는 서성일 사회과학원 실장파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어떤 로선이라고 볼수 있는가.

서성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시신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려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이다.

이번에 제시된 병진로선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핵강국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실현하는데서 역사적의의로 된다.

이 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 식으로 반미전면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또 핵으로 공화국을 어찌보려고 미

군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부득불 핵전쟁연습에 미처달뛰는 미래와 보다 위력한 핵무력으로 단호히 맞서면서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여기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은 또한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공화국의 실정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로선이라는 데 있다.

사실 공화국은 수십년동안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어왔다. 그것은 세계적경제위기의 원흉인 미국과 직접 맞서고있는것으로 하여 국방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하였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은 총대에 의하여 지켜지는데는 철리로 새긴 우리 인민이었기에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는데 어려움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군사력을 제일국가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서 한치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은 존엄한 투쟁속에서 생활력이 뚜렷이 확충된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에 기초하고있다는데도 있다.

공화국이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에도 끄떡없었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괴담살책동속에서도 자주적대결을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견지하고 관철하여온데 있다.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희유에 못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고 침략의 희생물이 된 여러 나라들의 회교는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의의와 생활력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장군님께서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이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파시던 과학적인 핵보유국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새로운 병진로선은 가장 정당하며 가장 우월한 로선으로 되고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어 감사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시면서 공화국의 핵은 통일조국의 통성변명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 가르침은 수만말던 우리 민족사와 힘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오늘의 국제관계에 대한 천리혜안의 명확한 분석과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날 조선민족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것처럼 자랑높던 동방레의지국, 반만년력사국을 하루아침에 강도일제에게 빼앗겼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힘이 약하면 민족의 운명도 나라의 자주권도 지켜낼수 없다는 영원한 피의 절규로 오늘날 우리 겨레의 가슴에 맺혔다. 약소국의 설움이 얼마나 컸으면 어느 시인이 《아! 조선아, 왜 너는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굳세지를 못하였느냐》 하며 가슴을 쳤겠는가.

그러나 오늘 공화국은 진보적인류가 우리리보는 불배의 강국,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가진 자위의 강국이 되었다. 우리 민족은 더이상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의 총포앞에 화승총으로밖에 맞설수 없었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다. 핵과 위성을 가진 행성의 힘있는 민족이다. 공화국의 핵은 단순히 복안이 아니라 남조선에 포함은 겨레의 운명을 지키

주는 예국의 보검이고 정의의 힘이다.

통일조국의 통성변명도 민족의 재보인 핵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의 핵이야말로 민족의 힘이며 통일조국의 힘이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약소국을 따 구 힘으로 짓통게는 강대국가 국은 북에는 실지로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대북군사적공격을 막아내고있는것은 유엔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반대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선군정치로 마련된 북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이다.》, 《북의 자위적억제력이 조선반도의 전쟁을 막아 남쪽 전체의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있다. 북의 핵은 통일조국의 핵이다.》라고 지적하고있는것도 공화국의 핵이 민족의 공동재부임을 과격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반미전면대결전은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과의 최후의 싸움이다. 이 정의의 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공화국이 틀어린 핵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공화국의 핵무력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정의와 부정의, 평화와 전쟁,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화국의 핵무력을 민족의 자랑, 민족의 공동재부로 귀중히 여기고 공화국의 핵무력강화를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것을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 책임있는 핵보유국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공화국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국제사회에도 지닌 핵전과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실현에 이바지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다.

공화국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원수도 일격에 짓부실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정밀핵타격수단들을 갖추고있다.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실현에도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가 있을수 없다는것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이 찾는 최종결론이다.

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한것도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것이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북부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게 될것이다.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공화국은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과방지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게 될것이다.

새로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법령에서도 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개발물질이 비법적으로 투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는것을 천명하였었다. 그리고 최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중화와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과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할것이라는것을 밝히었다.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실현에도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가 있을수 없다는것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이 찾는 최종결론이다.

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한것도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것이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북부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게 될것이다.

## 핵무력은 자위적국방력의 중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내놓았다.

핵무력은 자위적국방력의 중추이다.

인류의 문명과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의 산물인 핵이 발견되고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때로부터 근 7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세계적규모의 핵전쟁이 여러 지역에서 크고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핵을 휘두르는자들에게는 핵으로서 맞서싸워야 하며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크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더우기 침략자와 침략의 본거지들이 이 지구상에 존

재하고있는 한 핵무기로 정밀타격할수 있는 능력만 든든히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게 된다.

핵무력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인것이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은 지난 세기 종업부터 공화국을 시종일관 적대시하면서 갖은 핵공갈위협에 매달려왔다. 미국은 저들의 추악한 대조선압살책동을 이루어보려고 얼마전에는 핵전략폭격기 《B-52》편대를 비롯한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투입하여 광범위한 핵타격연습까지 벌여왔다.

최대적대국이며 교전상대인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조건에서 공화국이 핵으로 맞서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수 없고 평화와 발전에 대해서는 더우기 생가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리치이다.

본사기자 한영수

본사기자 최명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받들고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할것이다.



